

2019년 3월 31일

시편 8편(새번역)

- 1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 2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 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 3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 5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 6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 7 크고 작은 온갖 짐짐승과 들짐승까지도,
- 8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 9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사순절 기도시, 이해인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도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 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서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 있는 거울 앞에 서듯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의 내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나의 말도
 어느새 낡은 구두 뒤축처럼 닳고 닳아 자꾸 되풀이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 없이는 당신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주님!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당신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했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나에게 관대했고 이웃에겐 인색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이 심했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미워했음을
 여전히 참을성 없이 행동했고 절제없이 살았음을
 여전히 말만 앞세운 이상론자였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음을 용서하소서, 주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이 사십 일만이라도 거울 속의 나를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하소서.
 이 사십 일만이라도 나의 뜻에 눈을 감고 당신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때가 되면 황홀한 문을 여는 꽃 한 송이의 준비된 침묵을
 빛의 길로 가기 위한 어둠의 터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겸허한 슬픔으로
 더 큰 기쁨의 부활을 약속하는 은총의 때가 되게 하소서.
 재의 수요일 아침, 사제가 없어 준 이마 위의 재처럼
 차디찬 일상의 회색빛 근심들을 이고 사는 나!
 참사랑에 눈뜨는 법을 죽어서야 사는 법을
 십자가 앞에 배우며 진리를 새롭게 하소서!
 맑은 성수를 찍어 십자를 긋는 내 가슴에
 은빛 물고기처럼 튀어 오르는 이 싱싱한 기도
 "주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주간 시편 기도표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특별절기
밤중 혹은 새벽	95	96	97	98	99	93	47	성탄절 2:19:45, 46:85:89 부활절 1:2:3:8:19:48 성령강림절 8:29:33:48:68
	1	37	49	78	38	88	33	
	2	73	82		25	35	105	
	3		102		31	59		
	119,1-8	119,25-32	119,49-56	11,73-80	119,97-104	119,129-136	119,145-152	
	16	40	42	77	103	89	107	
		50	43	39	106	103	34	
	18	71	68	94				
	119,9-16	119,33-40	119,57-64	119,81-88	119,113-120	119,137-144	119,161-168	
	24	29	57	64	81	100	8	
	63	5	58	65	80	51	90	
	118	36	101	83	108	143	92	
아침	150	48	146	147,1-11	147,12-20	148	149	
	119,17-24	119,41-48		119,89-96	119,121-128			
	66	9	20	14	32	13	19	
		10	21	17	53	22	45	
9시	30	15	61	52	79		87	
	23	120	123	126	129	54	132	
	76	121	124	127	130	55	133	
	28	122	125	128	131			
정오	84	6	12	56	44	74	119,169-176	
	15시	7	26	70	41	60	85	
	145	11	86	75			72	
저녁	110	114	135	138	141	69	27	
	111	115	136	139	142	62	104	
	112	116	137	140	144		109	
	113	117	119,65-72			119,153-160	119,105-112	
취침 전	4	4	4	4	4	4	4	
	91	91	91	91	91	91	91	
	134	134	134	134	134	134	134	